



클·라·리·넷·실·내·악·을·만·나·다

3B - All CLARINET

B. Bartók F. Poulenc L. Bassi H. Baermann S. Prokofiev

2013. 9.30 월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주최 | 아트뱅크코리아 051.442.1941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ts Council Korea 부산광역시 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특별후원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MDC M-Dreamers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예매처 | INTERPARK 1544-1555 www.ticketpark.com

타에페르, 오릭과 함께 'Les Six (프랑스 6인조)'로 불리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함, 간결함, 명료함을 음악적 근간으로 두고 반인상주의, 반낭만주의를 추구하였다. 또한 운음적 화성과 뚜렷한 조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음악형식을 따르는 프랑스음악으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도, 솔직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위트로 가득 찬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내었다. 특히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신중한 짜임새를 가진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古城으로의 초대〉는 이러한 그의 해학과 슬픔이 동시에 표현된 이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모든 곡은 매우 간결하고 다양한 소품들로서 곡에 따라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곡도 있다. 이렇게 짧고 아름다운 소품을 독특한 악기 조합으로 편성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꾸며내는 것은 플랑크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이 곡에서 우리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낡은 기법들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좌절과 불안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

Bassi Fantasia from 'I Puritani'

바시 /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시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태어나 밀라노 콘서바토리아에서 베네데토 까를리의 지도를 받았으며 라스칼라 극장의 수석 클라리넷 주자였다. 모두 27개의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을 썼으며 오페라 아리아를 주제로 삼은 변주곡을 많이 썼으며 그 중에서도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베르디의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유명하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은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제 1막에서 노래되는 아르트로의 아리아 '그리운 아가씨여, 그대에게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제 1변주가 나오고, 그 뒤에 비로소 클라리넷으로 아름다운 주제가 연주된다. 전반적으로 매우 기교적인 작품인데, 특히 마지막 변주는 현란한 클라리넷의 기교가 펼쳐져 듣는 이를 압도한다.

Baermann Clarinet Quintet in Eb Major, Op.23 for Clarinet & Strings

베어만 /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

1784년 독일의 포츠담에서 태어나 1847년 뮌헨에서 생을 마감한 베어만은 19세기의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그는 당시 전 유럽에 클라리넷의 거장으로 유명했다. 멘델스존, 마이어 베어, 단찌 등에게 곡을 부탁하기도하고 당대의 유명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곡을 헌정하였으며, 특히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베어만은 협주곡, 시중주 그리고 3개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등 많은 곡들을 썼는데, 베어만의 서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 곡은 원래 1821년 출판된 하인리히 베어만의 Op.23, 클라리넷 5중주 3번의 느린 악장인데 1922년 바그너 전문가인 Michael Balling (미하엘 발링)이 필 시본을 발견하여 1926년 바그너의 초기 작품이라 발표한 것이 바그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계기가 됐다. 작곡가의 정정은 1964년 Hans-Georg Bach (한스 게오르크 바흐)에 의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Prokofiev Overture on Hebrew Themes, for Clarinet, String Quartet & Piano, Op. 34

프로코피에프 /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

프로코피에프는 1918년부터 22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유럽에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1917년 레닌의 주도 아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체제가 바뀌자 지주 계급 출신인 프로코피에프에게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된 조국 러시아를 떠나 1918년 9월 미국으로 향했다. 1919년 초에 소련에서 이민 온 유대인 앙상블 Simro의 위촉으로 1919년 작곡한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은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4중주를 위한 6중주로 유대인 민요에서 모티브를 따 아주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곡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며 특히 주제를 제시한 클라리넷과 첼로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점점 악기 상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국을 그리는 애듯한 서정시와도 같은 곡이며, 초연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로 그 다음해 1월26일 뉴욕에서 열렸다.

타에페르, 오릭과 함께 'Les Six (프랑스 6인조)'로 불리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함, 간결함, 명료함을 음악적 근간으로 두고 반인상주의, 반낭만주의를 추구하였다. 또한 운음계적 화성과 뚜렷한 조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음악형식을 따르는 프랑스음악으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도, 솔직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워트로 가득 찬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신뜻한 짜임새를 가진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古城으로의 초대〉는 이러한 그의 해학과 슬픔이 동시에 표현된 이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모든 곡은 매우 간결하고 다양한 소품들로서 곡에 따라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곡도 있다. 이렇게 짧고 아름다운 소품을 독특한 악기 조합으로 편성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꾸며내는 것은 플랑크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이 곡에서 우리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낡은 기법들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좌절과 불안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

Bassi Fantasia from 'I Puritani'

바씨 /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씨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태어나 밀라노 콘서바토리에서 베네데토 까를리의 지도를 받았으며 라스칼라 극장의 수석 클라리넷 주지였다. 모두 27개의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을 썼으며 오페라 아리아를 주제로 삼은 변주곡을 많이 썼으며 그 중에서도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베르디의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유명하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은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제 1막에서 노래되는 아르트로의 아리아 '그리운 아가씨여, 그대에게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제 1변주가 나오고, 그 뒤에 비로소 클라리넷으로 아름다운 주제가 연주된다. 전반적으로 매우 기교적인 작품인데, 특히 마지막 변주는 현란한 클라리넷의 기교가 펼쳐져 듣는 이를 압도한다.

Baermann Clarinet Quintet in Eb Major, Op.23 for Clarinet & Strings

베어만 /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

1784년 독일의 포츠담에서 태어나 1847년 뮌헨에서 생을 마감한 베어만은 19세기의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그는 당시 전 유럽에 클라리넷의 거장으로 유명했다. 멘델스존, 마이어 베어, 단치 등에게 곡을 부탁하기도하고 당대의 유명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곡을 헌정하였으며, 특히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베어만은 협주곡, 시중주 그리고 3개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등 많은 곡들을 썼는데, 베어만의 서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 곡은 원래 1821년 출판된 하인리히 베어만의 Op.23, 클라리넷 5중주 3번의 느린 악장인데 1922년 바그너 전문가인 Michael Balling (미하엘 발링)이 필 시본을 발견하여 1926년 바그너의 초기 작품이라 발표한 것이 바그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계기가 됐다. 작곡가의 정정은 1964년 Hans-Georg Bach (한스 게오르그 바흐)에 의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Prokofiev Overture on Hebrew Themes, for Clarinet, String Quartet & Piano, Op. 34

프로코피예프 /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

프로코피예프는 1918년부터 22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유럽에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1917년 레닌의 주도 아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체제가 바뀌자 지주 계급 출신인 프로코피예프에게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된 조국 러시아를 떠나 1918년 9월 미국으로 향했다. 1919년 초에 소련에서 이민 온 유대인 앙상블 Simro의 위촉으로 1919년 작곡한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은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4중주를 위한 6중주로 유대인 민요에서 모티브를 따 아주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곡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며 특히 주제를 제시한 클라리넷과 첼로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점점 악기 상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국을 그리는 애듯한 서정시와도 같은 곡이며, 초연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로 그 다음해 1월26일 뉴욕에서 열렸다.

타에페르, 오릭과 함께 'Les Six (프랑스 6인조)'로 불리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함, 간결함, 명료함을 음악적 근간으로 두고 반인상주의, 반낭만주의를 추구하였다. 또한 운음계적 화성과 뚜렷한 조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음악형식을 따르는 프랑스음악으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도, 솔직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워트로 가득 찬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신뜻한 짜임새를 가진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古城으로의 초대〉는 이러한 그의 해학과 슬픔이 동시에 표현된 이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모든 곡은 매우 간결하고 다양한 소품들로서 곡에 따라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곡도 있다. 이렇게 짧고 아름다운 소품을 독특한 악기 조합으로 편성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꾸며내는 것은 플랑크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이 곡에서 우리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낡은 기법들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좌절과 불안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

Bassi Fantasia from 'I Puritani'

바씨 /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씨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태어나 밀라노 콘서바토리에서 베네데토 까를리의 지도를 받았으며 라스칼라 극장의 수석 클라리넷 주지였다. 모두 27개의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을 썼으며 오페라 아리아를 주제로 삼은 변주곡을 많이 썼으며 그 중에서도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베르디의 '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유명하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은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제 1막에서 노래되는 아르트로의 아리아 '그리운 아가씨여, 그대에게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제 1변주가 나오고, 그 뒤에 비로소 클라리넷으로 아름다운 주제가 연주된다. 전반적으로 매우 기교적인 작품인데, 특히 마지막 변주는 현란한 클라리넷의 기교가 펼쳐져 듣는 이를 압도한다.

Baermann Clarinet Quintet in Eb Major, Op.23 for Clarinet & Strings

베어만 /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

1784년 독일의 포츠담에서 태어나 1847년 뮌헨에서 생을 마감한 베어만은 19세기의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그는 당시 전 유럽에 클라리넷의 거장으로 유명했다. 멘델스존, 마이어 베어, 단치 등에게 곡을 부탁하기도하고 당대의 유명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곡을 헌정하였으며, 특히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베어만은 협주곡, 시중주 그리고 3개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등 많은 곡들을 썼는데, 베어만의 서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 곡은 원래 1821년 출판된 하인리히 베어만의 Op.23, 클라리넷 5중주 3번의 느린 악장인데 1922년 바그너 전문가인 Michael Balling (미하엘 발링)이 필 시본을 발견하여 1926년 바그너의 초기 작품이라 발표한 것이 바그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계기가 됐다. 작곡가의 정정은 1964년 Hans-Georg Bach (한스 게오르그 바흐)에 의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Prokofiev Overture on Hebrew Themes, for Clarinet, String Quartet & Piano, Op. 34

프로코피예프 /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

프로코피예프는 1918년부터 22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유럽에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1917년 레닌의 주도 아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체제가 바뀌자 지주 계급 출신인 프로코피예프에게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된 조국 러시아를 떠나 1918년 9월 미국으로 향했다. 1919년 초에 소련에서 이민 온 유대인 앙상블 Simro의 위촉으로 1919년 작곡한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은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4중주를 위한 6중주로 유대인 민요에서 모티브를 따 아주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곡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며 특히 주제를 제시한 클라리넷과 첼로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점점 악기 상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국을 그리는 애듯한 서정시와도 같은 곡이며, 초연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로 그 다음해 1월26일 뉴욕에서 열렸다.

타에페르, 오릭과 함께 'Les Six (프랑스 6인조)'로 불리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게 된다. 그들은 단순함, 간결함, 명료함을 음악적 근간으로 두고 반인상주의, 반낭만주의를 추구하였다. 또한 온음계적 화성과 뚜렷한 조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음악형식을 따르는 프랑스음악으로의 복귀를 추구하면서도, 솔직하지만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워트로 가득 찬 현대적인 음악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청중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신뜻한 짜임새를 가진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古城으로의 초대〉는 이러한 그의 해학과 슬픔이 동시에 표현된 이상적인 곡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바이올린,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모든 곡은 매우 간결하고 다양한 소품들로서 곡에 따라서는 1분도 채 되지 않는 곡도 있다. 이렇게 짧고 아름다운 소품을 독특한 악기 조합으로 편성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꾸며내는 것은 플랑크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다. 이 곡에서 우리는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낡은 기법들의 청산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좌절과 불안까지 함께 느낄 수 있다.

Bassi Fantasia from 'I Puritani'

바씨 /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바씨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에서 태어나 밀라노 콘서바토리에서 베네데토 까롤리의 지도를 받았으며 라스칼라 극장의 수석 클라리넷 주자였다. 모두 27개의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을 썼으며 오페라 아리아를 주제로 삼은 변주곡을 많이 썼으며 그 중에서도 '벨리니의 청교도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베르디의 '리콜레토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 유명하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변주곡은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제 1막에서 노래되는 아르트로의 아리아 '그리운 아가씨여, 그대에게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제 1변주가 나오고, 그 뒤에 비로소 클라리넷으로 아름다운 주제가 연주된다. 전반적으로 매우 기교적인 작품인데, 특히 마지막 변주는 현란한 클라리넷의 기교가 펼쳐져 듣는 이를 압도한다.

Baermann Clarinet Quintet in Eb Major, Op.23 for Clarinet & Strings

베어만 /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내림마장조

1784년 독일의 포츠담에서 태어나 1847년 뮌헨에서 생을 마감한 베어만은 19세기의 뛰어난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그는 당시 전 유럽에 클라리넷의 거장으로 유명했다. 멘델스존, 마이어 베어, 단찌 등에게 곡을 부탁하기도하고 당대의 유명 작곡가들이 그를 위해 곡을 헌정하였으며, 특히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이 그를 위해 만들어졌다. 베어만은 협주곡, 시중주 그리고 3개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5중주 등 많은 곡들을 썼는데, 베어만의 서정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 곡은 원래 1821년 출판된 하인리히 베어만의 Op.23, 클라리넷 5중주 3번의 느린 악장인데 1922년 바그너 전문가인 Michael Balling (미하엘 발링)이 필사본을 발견하여 1926년 바그너의 초기 작품이라 발표한 것이 바그너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계기가 됐다. 작곡가의 정정은 1964년 Hans-Georg Bach (한스 게오르크 바흐)에 의해 정식으로 이루어졌다.

Prokofiev Overture on Hebrew Themes, for Clarinet, String Quartet & Piano, Op. 34

프로코피예프 /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

프로코피예프는 1918년부터 22년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유럽에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다. 1917년 레닌의 주도 아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체제가 바뀌자 지주 계급 출신인 프로코피예프에게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된 조국 러시아를 떠나 1918년 9월 미국으로 향했다. 1919년 초에 소련에서 이민 온 유대인 앙상블 Simro의 위촉으로 1919년 작곡한 '히브리 주제에 의한 서곡'은 클라리넷, 피아노, 현악4중주를 위한 6중주로 유대인 민요에서 모티브를 따 아주 빠르게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서곡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며 특히 주제를 제시한 클라리넷과 첼로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점점 악기 상호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국을 그리는 애듯한 서정시와도 같은 곡이며, 초연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로 그 다음해 1월26일 뉴욕에서 열렸다.

PROGRAM

Bella Bartók [1881-1945] Cla, 채재일 Pf, 박정희

Roumanian Folk Dances for Clarinet and Piano
(arr. Kalman Berkes)

- I . Joc cu Bata (장대 춤)
- II . Brail (허리띠를 잡고 추는 춤)
- III . Pe loc (발을 구르며 추는 춤)
- IV . Buciumeana (나무 피리 춤)
- V . Poarga romaneasca (루마니아 어린이 플라)
- VI . Maruntel (작은 스텝 춤)

Francis Poulenc [1899-1963] Vn, 이은옥 Cla, 채재일 Pf, 박정희

(L'Invitation au Chateau)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FP.138

Luigi Bassi [1766-1825] Cla, 채재일 Pf, 박정희

Fantasia from 'I Puritani'

Intermission

Heinrich Baermann [1784-1847] Vn I, 이은옥 Vn II, 서은아

Clarinet Quintet in Eb Major, Op.23
for Clarinet & Strings

Va, 손주연 Vc, 서성은
Cla, 채재일

- I . Allegro non troppo
- II . Adagio
- III . Allegro

Sergei Prokofiev [1891-1953] Vn I, 이은옥 Vn II, 서은아

Overture on Hebrew Themes, for Clarinet,
String Quartet & Piano, Op.34

Va, 손주연 Vc, 서성은
Cla, 채재일 Pf, 박정희